2부, 기도에 대한 응답 (2:18-3:21)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메뚜기와 외적을 들어서 종말론적 심판을 표시하였다.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실 때에도 메뚜기떼와 외적이 제거되어 추수가 회복된 데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하신다. 그들이 회복된 복을 누리는 것은 장차에 누릴 종말론적 복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3장의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적 완성도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젖을 흘릴 것이라고 하면서 논사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우리는 영적인 진리와 물질적인 표현이 함께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하면서 후반부도 읽을 필요가 있다.

1. 구원의 약속 (2:18-27)

1) 회복의 복 (2:18-20)

18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19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0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회개하는 백성들의 애가는 언약의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겁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바뀐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복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첫째, 현실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표현된다.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신 여호와께서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언약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땅이 메뚜기와 산불로 황폐케 되는 것처럼 되었는데 이제 그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니까 그 땅에 흡족함이 있게 될 것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될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채워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농사가 잘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였음을 나타낸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민족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흡족하게 되었다(2:19).

셋째, 기도의 응답으로 침입자를 물리치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기도하

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열국 가운데서 당한 수치를 제거하신다. 북편에서 군대가 내려왔는데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에 빠진다. 앗시리아나 바벨론의 군대가 북쪽에서 내려왔지만(렘 4:6-7; 겔 38:15; 39:2),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모두 동쪽의 사해와 서쪽의 지중해에 빠져서 죽는다. 메뚜기 떼로 비유된 군대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는데, 이것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재앙을 가져온 메뚜기 떼가 모세의 기도로 서풍에 밀려서 동쪽의 홍해에 빠진 것을 상기시킨다(출 10:19). 또한 나일 강의 물고기와 개구리가 죽어서 악취를 낸 것처럼 바다에 빠진 메뚜기들이 부패하여 독한 냄새를 풍길 것이다(참조. 출 7:21; 8:14).

하나님의 구원을 출애굽의 배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에 대한 강력한 보증이 된다. 강력한 바로의 다스림 아래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와께서 그분의 언약대로 이루신 것처럼, 새로운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셔서 이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다. 아무리 원수가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큰일 앞에서는 무력하며 죽어서 썩은 냄새를 낼 수밖에 없는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

2) 회복에 대한 반응: 찬송 (2:21-23)

21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22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3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12]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큰일, 즉 구원으로 말미암아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심판을 행한 것뿐 아니고 심판 후에 구원을 베푸신 것이 큰일이다.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땅과 들짐승과 시온의 자녀들이 기뻐한다. 전에는 산불 앞에서 창백하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2:6)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12) "의를 위하여"라는 말이 빠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비를 내린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혹은 '모레'가 이른 비뿐 아니라 선생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의의 선생"을 보낸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NASB, NIV의 각주). 그러나 한 문장에서 같은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즐거워한다. 들짐승과 들의 풀과 각종 나무가 힘을 내며, 그 정점에는 시온의 자녀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들짐승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풀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메뚜기가 와서 풀을 다 갉아먹고 또한 화마(火魔)가 할퀴고 지나가면 들짐승이 고통 가운데 빠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 "황무한 들"(2:3)에 풀이 나고 나무도 열매를 맺게 되니까 들짐승들이 기뻐한다. 언약의 저주가 물러가고 언약의 복이 임해서 농작물이 잘 되기 시작한다(레 26:3-4).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그들의 힘, 즉 열매들을 풍성하게 내놓는다.

언약의 복의 정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2:23). 그들은 물질적인 회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복을 주시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복의 정점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심판을 끝내고 복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시온의 자녀들은 자신들을 지으신 그들의 왕을 인하여 기뻐한다(시 149:2).

하나님께서 이른 비(10-11월)와 늦은 비(4월 초)로 언약의 복을 주실 것이다. 기근 때문에 밭이 말랐고 사람의 기쁨도 말랐는데(1:12) 이제 때에 따라 내리는 비로 넉넉하게 되었다. 비가 내리는 것은 여호와의 복의 가시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풍성한 기쁨을 준다.

3) 회복의 절정 (2:24-27)

24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늣과 황충과 팟종이의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26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27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메뚜기로 말미암은 파괴의 회복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도 놀라운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전의 심판을 능가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은 물질적으로도 표현되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주신 결과로 이제는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그들이 메뚜기로 당한 햇수대로 갚아 주신다. 메뚜기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메뚜기뿐 아니라 다른 민족의 압제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음을 암시한다. 오랫동안 외국의 지배를 받으면 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한 햇수대로 완전히 갚

아 주실 것을 약속하였다(참조. 시 90:15).

'당한 햇수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메뚜기 떼가 오랫동안 재해를 입힌 것은 우리가 그만큼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반역하였다는 증거가 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도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신다. 오랫동안 반역하고 생을 낭비한 사람에게는 조금만 회복시켜 주고, 조금 반역한 사람에게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다.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완전한 회복'에 있다. 오랫동안 거역하여 많은 징계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자비 가운데서 그에게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다. 이전의 기억이 다 없어지도록 완전히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포도원 품꾼에게 모두 한 데나리온 씩 주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에 있는 자에게는 빈 구석이 없도록 완전하게 채워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서 부족한 자에게 더 많이 채워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더 받은 자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채워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부족이 없이 고루 채워지는 것이다. 오랫동안 반역한 사람의 간증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 고루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된다(2:27).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마치 출애굽의 구원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신 것처럼 새로운 구원의 일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통해서 알리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따라서 그들은 다시 징벌을 받아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1장에서 포도원과 밭의 소산이 말랐을 때에 농부가 부끄러워했는데(1:11) 이제는 그러한 언약의 저주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참된 회개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황무하게 되었지만(2:3) 하나님의 복으로 이제 낙원으로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온 세상에 복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지만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서는 그의 무한하신 자비를 보여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참된 인자가 있으신 분이다. 그분의 참된 인자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은혜와 진리,"[13] 즉 참된 인자를 보여 주

13)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은 중언법(重言法)으로 '참된 은혜'라는 뜻이다.

신 데서 잘 나타났다(요 1:14).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절정으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여호와가 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2:27), 그 언약대로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마 1:23; 28:20). 하나님의 참된 인자를 보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을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 나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거하시는 교회의 완전함을 위해서 내가 징계를 당한 것도 그 햇수대로 넉넉하고 풍족하게 채워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세상에 어둠이 임하였을 때에도 회개하는 한편 강도를 낙원으로 인도하신 분이시다(눅 23:43). 심판 가운데서 참된 사람을 베푸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엄위와 참된 인자가 그리스도에게서 더욱 찬란하게 나타났다. 신부 된 교회를 점이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밖에서 가져온 모든 결핍도 다 채워 주신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 가시면서 나의 큰 부족도 채워 주시는 것이다.

2. 충만하게 부어 주실 성신 (2:28-32)

요엘서 2:28-32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인용하여서 설교한 본문으로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부분이다. 그러나 친숙하다는 이유로 쉽게 넘겨서는 안 되고, 또한 신약의 관점에서만 이 부분을 읽어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본문을 요엘서의 문맥에서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러할 때에 신약에서 인용된 본문의 뜻도 바르고 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2:28-32를 전후의 문맥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바로 앞부분인 2:18-27에서는 땅의 회복과 풍성한 추수에 대해서 가르쳤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앞부분은 물질적인 복으로, 뒷부분은 영적인 복으로 나누어서 가르쳤다. 그러나 이러한 쉬운 구분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풍성한 소출이 곧 언약의 복을 나타내는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2:18-27에서도 물질적인 풍성함이 여호와의 구원을 나타낼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 정점에 놓여 있다(2:27). 따라서 '물질적-영적' 구분법은 본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2:28-3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구원을 발전시켜서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회복의 정점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28절에서는 그 내용을 "여호와의 신"으로 표현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2:27)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호와의 신이 아니면 그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는 데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처럼 2:28-32은 앞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앞의 주제를 더 발전시킨다. 처음에는 땅의 회복과 많은 소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정점으로 여호와의 내주와

성신을 부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언약의 복의 핵심으로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는 것을 제시한다.

1) 성신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약속 (2:28-29)

28 그 후에[14]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15]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1) 모든 육체에 성신을 부어줌

'만민'이라고 번역된 말은 직역하면 '모든 육체'이고, 이어서 나오는 자녀, 늙은이, 젊은이, 남종과 여종이라는 말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저주 아래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회복될 것을 소망하면서 모든 육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구약에서 '육체'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과 대비해서 약함을 표시하였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사 31:3)는 말씀은 '영'과 대비하여서 육체는 약하다고 가르친다. 육체는 약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신으로 힘을 주셔야만 힘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일을 할 수 있다(슥 4:6).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사람을 '모든 육체'[만민]로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단지 육체로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추구하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에서 걸려 넘어졌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넘어진 것은 바로 그들의 육체성과 관

---

14) "그 후에"라는 말 때문에 이 부분을 종말에만 적용하는 것은 단어에 집착한 해석이 될 것이다. 침략군의 멸망에 대한 표현에도 종말론적인 심판의 이미지가 있다(2:19-20).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도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말이다. 따라서 18-27절은 물질적인 복을 가리키고 28-32절은 신약의 영적인 복을 가리킨다고 양분해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 후에"를 "말일에"라고 인용하면서 이 문단을 인용하였는데, 이것은 이 문단뿐 아니고 요엘서 전체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15) '만민'은 직역하면 '모든 육체'이다. 여기에서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여러 부류의 사람을 가리킨다. 사도행전에서 요엘서의 인용 부분에서는 '모든 육체'로 바르게 번역하였다.

성신에 대한 약속은 오순절에 모든 민족에게 선언되었지만 아직은 요엘서의 맥락에서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오순절에도 일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선언되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약속이 먼저 유대인과 그의 자녀에게 향한 것임을 바르게 지적하고, 이어서 모든 먼데 사람에게도 주어졌음을 덧붙였다.

련이 있다(민 11:11-17 등). 육체성을 극복하지 않고는 광야에서 열두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모든' 육체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것은 모세가 바라고 소원하던 바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책무를 받았지만 그 백성들이 마실 것과 먹을 것, 즉 현세적인 것을 가지고 불평할 때에 그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70인 장로들에게 성신을 주어서 그들이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였다. 그런데 70인 장로가 모두 회막에 모인 것은 아니고 두 명은 자기의 장막에 머물러 있었다. 그 두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것을 금하게 명하라고 모세에게 권하였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민 11:29)고 대답하였다.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신으로 행하여 성신을 거스르는 그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성신이 강림하는 것으로만 바르게 해결될 수 있었다(사 63:9-10).

모세의 소망이 이제 요엘 선지자에게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첫째, 요엘 선지자는 '모든 육체'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고 약속하여 모세가 소망하던 것이 곧 이루어질 것을 말하였다.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성신의 능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였으나 이제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성신이 임할 것이 약속되었다.

둘째로, 모든 백성에게 성신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였다. 성신을 '부어 주시는 것'은 '주시는 것'보다 더 풍성한 모습을 표현한다. 홍수처럼 넘치게 부어 주실 것이다. 징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처럼 해벌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심으로써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였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성신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소망한 것은 요엘 선지자뿐 아니라 다른 선지자도 중요하게 가르친 바이다(겔 36:26-29).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신약의 교회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의 구분이 없이 성신이 임하였고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갈 3:28).

(2) 성신의 부어주심과 선지자적 직분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는 말은 오해하기 쉽다. 나이가 든 늙은 사람은 꿈을 꾸고 젊은 사람은 비젼(이상)을 가지고 추구하면서 산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 구절을 근거로 『젊은이에게 환상을』이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다. 그는 꿈이나 이상을 개인의 이상이라는 의미로, 즉 개인주의적으로 보고서 그러한 책을 썼다.

그런데 구약을 자세히 보면 꿈과 이상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는 방법이었다. 교회가 유아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잠이 들어 좀더 수동적인 순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꿈과 이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만 모세에게는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고 하였다(민 12:6). 꿈과 이상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요엘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꿈과 이상을 보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것을 소망하였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안다면 그들은 육체성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육체성의 한계를 벗어난다면 다시는 언약의 저주 아래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을 개인의 이상과 환상과 꿈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을 떠나서 자기의 종교 가운데서 사는 일이 되는 것이다.

2) 여호와의 날 (2:30-31)

30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하늘을 어둡게 하고 땅에 재앙을 가져온 메뚜기의 재앙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는데(1:15), 지금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지금까지의 재난이 부분적으로 가리켰던 심판의 실체가 임할 것이다.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일이 있다. 월식 때에는 달빛이 점차로 적황색으로 바뀐다. 해와 달이 빛을 잃는 것은 일식과 월식으로 어느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은 어둡게 되는 것을 묘사하는 말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고 그 결과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나면 이것은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불과 연기 기둥은 여호와께서 나타날 때에 따랐던 현상인데(출 19:18; 20:18; 사 6:4), 여기에서는 피가 언급되었고, 또한 성경에서 피와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이미지로도 사용되었다(사 9:5; 겔 21:32). 따라서 본문의 피와 불과 연기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심판을 표현하는 말이 된다.

심판에 대한 무서운 선언은 과거의 사건을 배경으로 주어졌다. 애굽 사람에게 행한 열 가지 재앙 가운데 여덟째 메뚜기 재앙으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아홉째 흑암 재앙으로 태양이 빛을 잃었다. 흑암의 재앙이 있은 다음에 장자를 잃는 재앙이 따랐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해와 달이 빛을 잃으면 그것만으로도 두려운 일인데 이것들은 동시에 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전조가 된다.[16] 이처럼 요엘 선지자는 과거의 심판에 근

거하여서 현재와 앞으로 있을 큰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였다.

3) 구원의 길 (2:32)

32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1) 심판과 구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지자는 선언한다. 그런데 32절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30-31절의 심판의 배경에서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심판이 없는 구원은 공허한 것이 된다.

혹시는 30-31절을 괄호 안에 묶고 28-29절의 성신의 강림과 구원을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32절은 28-29절과 연결시켜서 읽어야 한다. 성신께서 임하셔서 선지자적인 직분을 받은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30-31절을 괄호 안에 묶어 두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요엘서의 중심 주제이며 그 주제를 중심으로 성신을 부어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 문단의 가운데 있는 심판의 말씀은 이 문단의 핵심인 것이다.

(2)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

32절에서는 '부른다'는 말은 두 가지로 사용되었다. 첫째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다. 장차 임할 크고 두려운 심판을 생각할 때에 누가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실존적으로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올 것을 촉구한다.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여호와께서는 남은 자 중에서 부르신다.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2:1), 거기에는 남은 자와 피한 자가 있다. 그들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다. 여호와께서 그 남은 자들 가운데서 불러 내신다는 사실은 여호와의 부름의 성격을 잘 나타낸다.

---

16) 팔마 로벗슨은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을 열째 재앙과 관련하여 해석한다. 즉 장자를 잃은 백성들이 슬퍼할 때에 달이 핏빛으로 변한 것과 같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영적 해석이라 생각된다. 해와 달이 빛을 잃는 것은 한 가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없다. 여호와의 날에 해와 달이 빛을 잃어 어둡게 되었다는 것만 해도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충분히 생각나게 한다.

즉 그들에게 무슨 좋은 것이나 착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은혜로 불러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그들이 남은 자가 된 것은 여호와의 부름을 받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할 점들이 있다. 첫째, "누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즉 인간의 부름과 하나님의 부름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으로서는 자기 스스로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여호와께서 무한하신 긍휼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부르신다. 여호와께서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응답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언약의 교제가 완성되는 것이다.

둘째, 그렇다면 왜 인간의 부름을 먼저 기록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뒤에 기록하였는가? 신학적 논리로 생각하면 여호와께서 부르신 것이 먼저 나오고 사람이 부르는 것이 그 다음일이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임박한 진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얻도록 촉구한다. 사람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가르치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한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시고 우리를 부르신 사실이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의 논리의 순서로 하나의 논리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임박한 진노에서 구원의 길을 보여 주고, 또한 그러한 구원의 근거는 남겨 두시는 긍휼과 부르시는 주권에 있음을 가르쳐 준다. 우리의 논리적인 순서와 달리 기록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순서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신학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셋째,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부르시는가? 문맥을 살펴보면, 먼저 성신을 부어 주시는 일이 있고(2:28-29),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종말론적인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며(2:30-31),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먼저 여호와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2:31). 이러한 문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것은 선지자적인 성신을 부어주심으로써 부르시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신으로써 부르시는 일이 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호와의 부르심은 신비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바로 성신으로 선지자적인 말씀을 깨닫는 것에 있는 것이다. 전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선지자적 말씀으로 죽은 자를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신다.

4) 오순절에 성취됨

오순절에 베드로 사도는 2:28-32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였다.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큰일로 가르쳤는데(2:20, 21), 오순절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을 하나님의 큰일(행 2:11)로 전파하였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큰일로서의 구원은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성신을 받아 보내심으로써 완성되었다고 가르쳤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선지자보다 뛰어났지만(민 12:8), 그리스도는 성신을 보내셨다는 점에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이다. 모세가 소원하던 일이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신을 보내 주심으로써 이루어졌다. 오순절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보내셨다는 성취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1) 베드로 사도의 요엘서 인용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오순절의 설교를 하였는데, 몇 가지 점에서 요엘서와 차이가 있다. 첫째, 요엘서에서는 "그후에"라는 말로 문단이 시작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말세에"라고 인용하였다. 요엘서의 예언이 그 시대뿐 아니라 그 의미가 그리스도에게서 더 충만히 나타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다.

둘째,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를 문자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취를 중심으로 인용하였다. "여호와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주'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았으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예수를 가리킨다. 오순절에 성신이 임하였다는 사실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성신을 받아 교회에 주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연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는 말로 끝난다(2:36).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현세와 내세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현세와 내세에서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인용하며 설교할 때에 문자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사실을 강조하여 가르쳤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구약의 성도들은 시온의 남은 자로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도 하늘의 예루살렘인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교회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다. 교회가 구약 예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로 표현된다(롬 10:13; 고전 1:2; 행 9:14, 21; 22:16).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도 교회론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교회를 떠나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며,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2) 심판과 구원: 패역한 세대로부터의 구원

베드로 사도는 설교에서 요엘 2:28-32를 전체로 인용하였다. 즉 성신의 강림에 대한 것

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구절만 인용하고 "종말론적인 심판"을 표현하는 구절(행 2:19-20)은 제외한 것이 아니라 그 문단을 모두 인용한 것이다. 이것은 구원뿐 아니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순절에 전체로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요엘서에서도 성신이 임하는 것은 지금 임하는 '심판에 대한 구원'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우리는 오순절에서 예수를 주로 불러서 '구원'을 얻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심판'의 요소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심판을 잘 표현하는 말은 '패역한 세대'라는 말이다.[17] 베드로 사도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패역한 세대에서 멸망당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으라고 촉구하였다(행 2:40). 마치 임박한 진노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패역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기 바로 전에 요엘서를 한 구절 더 인용하였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행 2:39)는 말씀은 요엘서 2:32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여호와께서 먼저 부르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는 일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부르신다는 말은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개인의 종교적인 경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전파하는 말로써 부르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신을 내려주셨고 사도를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 장차 있을 큰 심판을 향하여 가는 것이 된다.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는 요엘 2:28-32의 인용으로 시작해서 요엘서 2:32의 인용으로 끝맺는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 자체가 요엘서의 이 구절에 대한 주해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 2:32를 그의 설교의 마지막에서 인용함으로써 창조적인 주해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신을 보내고 사도를 통해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시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였다. 그는 패역한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청중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는 것은 무너져 가는 집에 살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거기에서 나오라고 선포하였다. 베드로 사도는 요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배경에서 구원의 길을 가르친 것이다.

---

17)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표현하는 말이었고(마 16:17. 참조. 마 11:16; 12:39, 41-42, 45; 16:4)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신 32:5, 20). 그들은 '굽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르게 듣지 못하는 세대의 사람들이다. 따라서 패역한 세대에 속해 있으면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

(3) 오순절의 성취의 특징: 이중 성취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오순절의 성취는 다음의 특징이 있다. 첫째, 종말에 대한 요엘서의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성취되었는데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중적인' 방식으로 성취되었다. 지금 여호와의 날이 이미 임하였지만 임하였고 장차 온전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한다.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이전의 시기인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고후 6:2). 주님께서도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자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마 24:29-31; 눅 21:11, 25-27).[18] 예언의 말씀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중적인 방식으로 성취되었다.

둘째, 예언의 말씀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성취되지만, '구원도 이중적'이고 '심판도 이중적'인 방식으로 성취되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심판도 마찬가지로 이중적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금도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단지 구원의 완전한 성취가 '지연'된 것처럼 심판의 시행이 '지연'된 것일 뿐이다.

셋째, 따라서 이중적으로 성취되는 심판과 구원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은 우리의 구원이 된다. 요엘서에서도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동시에 구원의 날인 것처럼 신약에서도 심판과 구원은 나눌 수 없게 연결되었다. 또한 역사의 마지막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곧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된다(계 19:1-10).

이중적인 성취를 단선적으로 이해하여 심판과 구원을 분리시키는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 지금은 구원의 시대이고 심판은 종말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자의 삶을 매우 해이하게 만드는 쉬운 도식이고 요엘서나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절반만 받은 생각이다.

이중 성취를 단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암암리에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중 성취는 하나님의 경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자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엘서에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과 그 밖이 구원과 심판으로 현저하게 대비된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온 교회와 패역한 세대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가르쳤다. 패역한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들어와 구원을 얻는 것이다.

---

18) 피와 불과 연기라는 말이 종말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누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현재에서 종말로 옮겼고 본문의 중심은 구원이라고 해석한다. Conzellmann, *Acts*, 21; I. H. Marshall, 74; C. K. Barrett, 138-139.

(4) 사도행전 2:19에 대한 해석

이중 성취의 문제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사도행전 2:19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가르쳤다: "어떤 이는 이것을 [기사와 징조를, 인용자]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초림과 관계하여 해설하고 다른 이는 마지막 부활의 날과 관련시킨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 생각으로는 선지자가 이 말로써 [기사와 징조라는 말로써, 인용자] 그리스도의 왕국 전체를 포괄한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그의 왕국의 완성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시기부터 그것을 '큰 날'이라고 불렀다. …… 더구나 그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주께서는 세계의 구조 전체를 통해 그의 진노의 표지를 보이신다는 것이다. …… 해와 달이 운행하면서 빛을 비출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증거하는 것처럼, 또한 다른 면에서 선지자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싫어하심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예언하는 것이다."[19]

칼빈의 주석처럼 사도행전 2:19-20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진행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요엘서에 대한 인용을 정당하게 해석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2:19-20에 미래의 종말론적인 색채가 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늘과 땅의 징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후하여 흑암과 지진 등으로 나타난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20] 이러한 징조들도 이중적인 성취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구원과 심판을 모두 이중적으로 보아야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을 수 있다. 구원은 지금 성취되고 심판만 연기되었다는 식의 도식화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지만 성도의 생활에서 긴장감을 앗아가 버린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람들에게는 쉽게 설명할 수 있으나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도식보다는 성경의 모든 교훈을 충실히 붙들고 생활에서 긴장을 갖고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일 것이다.

(5) 성신을 따르는 생활에 대해서 갖는 함축

오순절에 성신이 오신 것을 심판의 배경에서 이중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교훈을 충실히 붙잡는 것이 된다. 심판과 구원뿐 아니라 성신이 임하는 것도 이중적이어서 우리는 지금 성신을 받았지만 또한 마지막 날에 성신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구원의 성신을 지금 의지하면 생명이지만 성신을 거스르면 사망임을 배운다.

성신을 의지하는 것을 이중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도 큰 함축을 갖는다. 우리는 성신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고 보통 신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순절에 오신 성신은 심판의 배경에서 주어진 것이고 우리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

19) J. Calvin, *The Acts of the Apostles*, Eerdmans, 1965, p. 60. 시편 19:6에서도 태양의 '열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다.

20) Johnson, *The Message of the Acts*, 61-62.

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신을 의지해야 한다. 성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진다. 지금 성신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사망이고 장차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것이다.

이중 성취에 근거하여서 성신을 생각하는 것은 서신서의 가르침과도 통한다. 성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성신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롬 8:6-9). 육신으로 행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맹수처럼 서로 물고 먹어서 함께 멸망하는 자리에 떨어진다(갈 5:15). 이러한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성신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갈 5:16-18).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적인 소욕(所欲) 때문에 항상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것이 육신에 대한 근본 해결책임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였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현실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구원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정당하게 부르는 것에 있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성신이 임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은 증거라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신을 선물로 받고 살 것을 가르쳤다. 선물로 주신 성신을 의지하고 살아야 패역한 세대에서, 즉 하나님의 현재 임하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것이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생명의 길을 전하였다. 성신에 대한 예언을 심판의 배경에서 이해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깊이를 바르게 깨닫게 되며 또한 성신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욱 잘 알 수 있다.

(6) 요엘서와 오순절의 성신

우리는 성신 하나님을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성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 기적은 그것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을 확증하는 의미를 지녔다. 성신 하나님께서는 전파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려 하심이다. 육신성에 갇혀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려고 성신 하나님을 약속하셨고 보내 주신 것이다. 요엘서에서 성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바로 이 맥락에서 주어졌다. 자기의 육신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한 것이 바로 예언자 요엘이 전파한 복음이었다.

성신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회개의 영'이라는 사실은 오순절 날에 더 밝히 드러났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분으로 오신 성신께서는 오순절 날에 삼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회개케 하고 세례를 받게 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성신께서 임하신 날에 이루어졌다.

요엘서와 사도행전에서 가르치는 성신의 사역이 회개케 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로 하여금 더욱 자기의 육신을 부인하고 나아가게 한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버리고 더욱 성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2:18–32 복습 문제

1. 1) 허개하는 백성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2:18)
   2) 하나님께서 허복시켜 주실 때에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3) 하나님께서 허복시키실 때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하나님께서는 침입자를 어떤 방식으로 물리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2. 1) 하나님께서 허복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 언약의 복의 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2:23)
3. 1) 하나님께서 신판을 능가하는 허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어떤 말로 약속하셨습니까? (2:25)
   2) 하나님께서 완전한 허복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서는 "햇수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허복을 약속하셨는데 여기에서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4. 여호와의 참된 인자는 누구에게서 어떻게 계시되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신판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이 나의 생활에는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5. 1) 요엘 2:18-27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2) 요엘 2:28-32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3) 2:18-27은 물질적인 복으로, 2:28-32는 영적인 복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4) 2:28-32는 어떤 점에서 앞부분을 더 발전시켜서 가르칩니까?
   5) 언약의 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6. 1) 2:28에서 "말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음 구절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2) 모든 육체에 성신을 부어준다는 것은 언약의 저주가 임하였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3) 구약에서 육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가르칩니까? (사 31:3)
   4) 이스라엘 백성을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5) '모든' 육체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를 모세가 소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모세의 소망이 요엘 선지자에게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됩니까?
7. 1) 꿈과 이상은 구약에서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2) 육체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8. 1)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날입니까?

2) 피와 불은 무엇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사용되었습니까?

3)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심판이지만 또한 어떤 점에서 더 큰 두려움을 줍니까?

9. 1) 2:32의 구원에 대한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2) 2:28-32에서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10. 1) 2:32에서 부른다는 말이 어떻게 두 가지로 사용되었습니까?

2)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3)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 가운데서 부르신다는 사실은 여호와의 부름의 성격을 어떻게 특징 지웁니까?

4) 인간의 부름과 여호와의 부름을 어떤 관계에서 생각해야 됩니까?

5) 인간의 부름의 근거는 여호와의 부름이지만 인간이 부르는 것을 먼저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6)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요엘 2:28-32의 문맥에서 설명해 보십시오.

11. 1) 요엘 2:20-21에서 '여호와의 큰일'과 사도행전 2:11에서의 '하나님의 큰일'은 각각 무엇을 가리킵니까?

2)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말세에"라고 인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베드로는 요엘서의 '여호와'를 누구에게 적용하여 가르쳤습니까?

4) 구약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12. 1) 모세가 소원하였던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2) 오순절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3) 이중 성취를 단선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부족이 있습니까?

13. 1) 요엘서에서 성신을 부어주시는 것은 심판과 관계하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 베드로 사도는 임박한 진노를 어떤 말로 표현하여 가르칩니까?

3) 패역한 세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행 2:39-40)

4)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5) 캘빈 선생님의 사도행전 2:19에 대한 주해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14. 오순절에 성신이 임한 것을 심판의 배경에서 이중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신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어떤 함축을 지닙니까?